

광주시, 中유학생 인천공항서 버스 수송

11개 대학 2500여 명 중 1500여명 입국 예정

내일부터 3주간...이동중에도 사회 접촉 최소화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주간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을 인천공항 등에서 각 대학교까지 버스로 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은 학교버스 등을 이용해 중국인 유학생을 자체 수송하고 있다.

시는 소수 인원이 입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송이 어려운 일부 대학의 형편을 감안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의해 수송할 계획이다. 이동 중에도 유학생의 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소 대신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도착 후 2주간 기숙사 격리 또는 자가 격리(일일 2회 발열체크 등)를 통해 증상이 없는 경우, 수업에 참석하도록 대학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비해 3차례 대학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을 논의해 왔다.

광주시 전체 중국인 유학생은 전남대, 호남대 등 11개 대학 2500여명으로 입국 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3월16일로 개강 일정을 연기하고,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단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받지 않고 불편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범 기자

동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열감지기 설치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구청 현관 중앙출입구와 보건소 입구에 열감지기 2대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구청과 보건소 별관의 주요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요 출입구 한 곳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구를 일원화해 자체소독은 물론 직원과 민원인 등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열체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서구, 코로나-19 이웃의 관심으로 이긴다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활동가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이웃살피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웃살피미운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전체 구민에게 예방활동 수칙 전파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마련됐다.

이에 18개동 위기가구발굴단,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활동가 2,108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예방활동에 앞장선다.

복지활동가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재난정보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수칙 등을 안내한다.

남구 “만 50~70세 전문 퇴직인력 모십니다”

광주 남구는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이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 및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기관간 매칭을 통해 서로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전문 분야 퇴직자의 경우 재능 활용을 통한 일자리가 확보되고, 공적 기관에서는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 확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정력 총동원

광주 북구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북구는 지난 2월 4일 광주의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9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7개 대응반에 전 부서와 27개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일대일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의사환자 이송 등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비상근무반을 2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10명의 근무 인원을 23명으로 증원에 24시간 가동하고 광주시, 자치구, 소방안전본부,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광산구,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는 좌식문화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노약자·장애인 등의 편리한 음식점 이용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광산구의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해 외식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선자금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광산구 일반음식점이고, 업소 규모, 설치 장소, 영업자 의지, 여건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대상 가계를 최종 선정한다.

임형택 기자

전남개발공사, ‘코로나19’ 혈액수급난 지원 위해 헌혈



백혈병어린이재단 전달

전남개발공사는 26일 사육 대강당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 행사를 전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헌혈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과 입주기관(전남문화관광재단, 에이플러스에셋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해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 장소에 대한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매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헌혈증을 모아 오고 있으며, 이번엔 적립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공무원 1400명 투입해 신천지 신도 3만2000명 증상 확인

광주시가 산하 공무원 1400여명을 투입해 신천지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파악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전국 신도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했다. 질병은 신천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명단을 각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질병에서 신천지 명단이 넘어오면 본청과 사업소 등 1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화 등 인터뷰를 통해 증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각 보건소에 대기조를 두고 통화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확인되면 선별진료소 등 필요한 조치를 받

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광주 지방경찰청도 함께 한다.

신천지 광주교회가 시에 자체적으로 제출한 광주 신도수는 2개 대형 교회에 2만6715명, 교육생 5378명 등 3만2093명이다.

시는 공무원 1400여명을 조를 나눠 전화 등을 통해 동시에 조사한다. 1명당 5분 정도로 총 소요시간은 4~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내용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파악해 만들고 전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문자를 비롯해 구체적인 확인 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최영범 기자

“농촌서 창업을”

전남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부 사관학교 4~5기 교육생을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된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는 귀농에 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교육과 이론교육을 실시해 1기 22명, 2기 68명, 3기 82명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중심 모듈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국가기술자격증, 농업용기계(드론, 굴삭기, 지게차 등) 기술자격

취득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기간은 6개월간 합숙과정으로 4기는 4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5기는 6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4기 3월 20일까지, 5기의 경우 4월 20일까지다.

김석기 본부장은 “대한민국 미래 일꾼인 청년들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 농업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인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엄벌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평균
2011년	1.1배	1.7배	2.1배	2.7배	3.3배	1.77배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83,961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